

---

서                      평

---

러시아의 포스트콜로니얼 정체성 :

유럽중심적 세계 속의 서발턴 제국

서평도서: Viatcheslav Morozov, *Russia's Postcolonial Identity: A Subaltern Empire in A Eurocentric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주 제 어: 서발턴 제국(subaltern empire)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 유럽중심적 세계(eurocentric world), 내부 식민화(internal colonization), 자기 식민화(self-colonization)



|서 평|

## 러시아의 포스트콜로니얼 정체성: 유럽중심적 세계 속의 서발턴 제국

강봉구 (한양대학교 교수)

역사나 사회과학에서 ‘제국’이란 용어 앞에 여러 관형어가 붙을 수 있으나, ‘서발턴(subaltern)’이란 관형어는 학계의 주된 흐름에서 통용되거나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이 용어는 이태리의 정치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로부터 유래하여, 주로 콜로니얼,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포스트콜로니얼 이론 지형에서 “‘서발턴(subaltern)’이란 용어는 대표성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는데, 그들의 권익을 대리하는 조직은 제한되며, 패권적 사회질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Morozov 2015. 1).”

현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주변국과의 관계, 국가성의 특징 등과 관련하여 ‘제국’이라는 명칭은 흔히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관형어가 붙은 ‘서발턴 제국’이란 모로조프의 명명은 현대의 위계적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제국의 위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 정치 체제와 문화에 결정적 규정력을 함의한다. 러시아는 제국이지만 패권적 질서의 중심에 속한 통상의 제국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서발턴’ 제국이란 의미에서 그 초점은 제국적 속성을 가진 ‘서발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콜로니얼의 시기 러시아의 ‘제국적 속성’은 과거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심리적·문화적 유산, 특히 제국적 정체성, 지정학적 위상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제국적 속성은 러시아적

서발턴의 항구적인 속성이다. 이 속성은, 러시아 주민들의 크림병합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서 드러나듯이, 러시아 주민들의 서발턴성(subalternity)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Morozov 2015. 12).

가장 간략히 정의하자면, ‘서발턴 제국’은 자신의 식민 주변부를 가짐과 동시에 서방 패권적 질서에 하나의 서발턴으로서 통합된다(Morozov 2015. 4)는 의미이다. 즉, 러시아의 경우, 서방의 주변부인 동시에 자신이 식민화한 주변부의 중심이라는 것이다(Morozov 2015. 15). 이것은 러시아 국내 뿐 아니라 탈소 유라시아 공간 모두에 적용가능하다. 이 서발턴 제국은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여 형식적 의미에서 식민화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주변부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데 그 위상의 고유성이 있다.

주권국가 러시아의 ‘식민화’라니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의 포스트콜로니얼 상황에서 이들이 구식민모국과 가졌던 관계를 상기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즉, 서방의 자유자본주의 주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침투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노력 및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련의 붕괴 이후 명실상부한 단일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독립 러시아는 중심 국가들의 식민화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 러시아는 자본주의 중심국들이 주체가 되는 외부 식민화의 대상으로서 서발턴의 지위를 갖게 되며, 중심이 요구하는 불평등한 조건에 따라 자유자본주의 질서에 통합되어 왔다(Morozov 2015. 31). 소련이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아니었지만, 신생 러시아연방이 유럽 중심주의와 그 핵심인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이를 추종해 왔기에 물질적, 관념적 두 가지 측면에서 서방에 의존적이며 서발턴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소련 해체 이후 흔히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독립 러시아연방의 세계경제체제 통합 혹은 서방 통합이란 아젠다에는 언제나

유럽 중심 세계질서에서 러시아가 위치한 주변부적 혹은 종속적 위상이 사실상 전제되어 왔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중심과 주변부의 발전 단계가 다르고 경제적 재생산의 양식이 다르며, 종국적으로 초과이윤의 획득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인식에서 푸틴의 러시아는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따른(in its own terms)’ 러시아 경제의 서방 통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유럽중심적 가치와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자국의 정치적 경계 내에서 국가 혹은 지배세력의 주도로 자신의 나라를 식민화하는 과정을 에트킨드(A. Etkind)는 내부식민화론[*Internal Colonization: Russia's Imperial Experience* (Cambridge: Policy, 2011)]으로 정리하였다.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에서 ‘내부 식민화(internal colonization)’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계 내에서 식민적 행정과 지식의 관행을 이용하는 것”(Morozov 2015. 29-30)으로 정의된다. 내부식민화론의 개념사의 단초는 유럽의 주변부, 식민지로서의 러시아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내부 식민화가 가능한 근본적 토대는 무엇보다 유럽 중심성의 자율적 내면화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제국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선택이기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배태된 지구적 불평등의 투사라는 경제적 연계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로조프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내부 식민화론이 러시아 내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경계와 위계성 및 중심-주변부간 작용의 메커니즘을 포스트콜로니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대 러시아사회의 이해를 깊이 하는데 일조하였으나, 내부식민화의 외부적, 국제적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였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내부 식민화 과정이 러시아가 세계 자본주의 중심의 식민화 대상이라는 외부 식민화와 상호결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부 식민화론자들은 그 역사적 동인과 기제에만 초점

을 둔 나머지 국내외 맥락의 교직과 인과적 결속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Morozov 2015. 85).

그 이유는 러시아가 주권국가의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식민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가가 자신의 주변부적 발전을 고무하는 식민화의 도구 혹은 핵심 제도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자기식민화(self-colonization) 즉, 러시아 국가 자신은 유럽 국제사회에 통합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을 대신하여 러시아 사회를 내부로부터 식민화해 나갔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러시아국가를 서방의 핵심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식민 주체로 볼 수는 없다(Morozov 2015. 32; 69). 마찬가지로, 모로조프는 내부 식민화 과정에 편재하는 억압의 국내적 구조 역시 자유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배태된 불평등 구조로부터 조건지워진 것으로 파악한다(Morozov 2015. 2). 모로조프는 서발턴 제국, 러시아를 전통적 제국성에 더하여 세계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불균등-결합 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의 결과물로서 개념화하였다(Morozov 2015. 84-86). 이를 통해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 분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서발턴과 제국성의 변증법적 교호작용을 선명히 드러내고 일국적, 지역적 시각을 넘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지구적 관점에서 문제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러시아 제국의 서발턴 지위는 러시아가 유럽 중심주의의 내면화, 특히 그 핵심인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수용하고 추종한 결과이며, ‘지체된 발전’으로부터 기인한 물질적·관념적 유럽 의존성의 위계적 징표이다. 러시아는 물질적·관념적 구조에서 유럽 중심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내면화하였기에 러시아인들에게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다. 그들의 정체성과 실천은 유럽적 규범 질서 속에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 위치해 있다(Morozov 2015. 15-16). 하나의 국가로서 러시아는 신자본주의적 자본주

의 발전모델을 완전히 내면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적 현대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유럽 중심주의 외 대안 부재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중심과 다른 점은 러시아가 자본주의 문명의 주변부적 나라이며, 그것은 세계적 규모의 불균등-결합 발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세계경제로의 통합에서 러시아의 서발터니티는 바로 이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Morozov 2015. 67-68). 그러므로 러시아는 서방 중심국가들과 비교하여 이 같은 경제적 격차, 정치·문화적 차이, 정체성 갈등 등으로 인해 서방의 패권적 질서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었다.

냉전 종결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상호 타자화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어 고착화되어가자, 러시아는 서발턴의 지위에서나마 적극 대응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규범적 종속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탈피하려는 본격적 노력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적으로는 주권민주주의, 대외적으로는 국제규범의 보수주의를 주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바 있다.

모로조프는 러시아의 국내 담론 지형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국가 주도의 현대화 주장이 점점 더 보수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급진적 전통주의 이데올로기를 ‘원시 보수주의(paleoconservatism)’로 명명한다(Morozov 2015. 104). 2012년 푸틴 3기부터 더욱 목소리가 커진 러시아의 자기주장과 보수화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 위치선정 그리고 국내 영역에서는 러시아의 역사적·이념적 고유성 및 이에 대한 강조를 통해 독자적 발전 방식과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수사학의 성격이 짙다.

이 원시 보수주의는 유럽 문명 및 기준과 구분되는 도덕적 규범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로 서방의 도덕과 규범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러시아식 보수주의가 천명하는 주된 내용인 신앙심과

가족적 가치에 대한 강조, 동성에 반대 등이 현대 러시아가 당면한 사회 현실과 개인적 실천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과적으로 이 전통적 보수주의의 실천은 러시아 국내에서 서방 적대화의 강화로 나타나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원시 보수주의에 대한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Morozov 2015. 104). 모로조프는 이처럼 서방 규범의 부정 외에 러시아의 규범적 대안 부재의 상황을 바바(Bhabha)를 인용하여, 식민지 노예의 위치에서는 “지배적 규범을 흉내 내고 왜곡하거나 심지어 전복할 수 있다; 노예가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만하다는 주인의 승인이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Bhabha 2005, *The Location of Culture*, 172 in Morozov 2015. 129)으로 비유하고 있다.

모로조프에 따르면, 원시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 왜곡 아래 묻혀 있는 순수하고 전통적인 러시아상이지만, 그것은 러시아식 상식의 렌즈를 통해 보자면 서방의 거울상(mirror image)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원시 보수주의의 빈약한 실체는 서방에 대한 적대화로 매워져 왔다. 서방에 대한 부정은 러시아가 주장할 수 있는 대안적 현대성의 유일하게 가능한 플랫폼이 되며 이것은 나름의 패권적 외양의 내면화이다(Morozov 2015. 161). 러시아가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때마다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인 서방 적대화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 의존성 그리고 그 이면의 유럽에 대한 제국적 적개심과 공존해 왔다(Morozov 2015. 13). 결과적으로 “원시 보수주의 담론의 대서방 적대화가 극단적일수록, 그 담론의 규범적 지평선은 순순한 부정성에 의해 규정되어질 뿐이다(Morozov 2015. 6).”

물론 변증법 ‘정-반-합’ 논리구조에서 실체 없는 ‘반(反)’은 ‘합(合)’을 도출할 수 없으며, 소통 자체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탈냉전의 국제안보 규범에서 서방이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화를 위해 수정주의적으로 추구해 온 ‘보호의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 대한 러시아의 규범

적 반격 같은 경우처럼 그 실체가 분명한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국가주권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 영토불가침 등의 전통적 규범의 준수만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요 강대국 간 컨센서스 도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관 서발턴 제국주의의 작동과 실천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대리인들은 서발턴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민들은 침묵당한다. 발화자는 세계적인 지배구조에 통합된 현지의 억압적 대리 지배자들이다. 러시아의 정치적 권위주의는 단지 러시아인들을 침묵시킬 목적으로 서발턴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Morozov 2015. 163). 주권자는 서방을 흉내내어 반응하고, 러시아 현대성의 시간과 공간은 유럽중심적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식민 관행이 러시아 전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모로조프는 “러시아가 서발턴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을 공고화하고 제국적 질서를 강화한다(Morozov 2015. 4)”고 진단한다.

저자는 서발턴 제국의 개념이 러시아의 정치와 대외정치, 특히 국제사회 속에서 러시아의 위상 분석 및 그것과 내부 식민화와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왜 러시아 정치, 특히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가 포스트콜로니얼의 관점에서 활발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것은 탈사회주의는 포스트콜로니얼이 아닌가 하는 오래된 질문과 동일한 것이다. 질문을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하다. 소련 시기 만형의 역할을 하였으며 소련의 국제적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와 여타 탈소 독립국들과의 관계는 포스트콜로니얼과 다른 관계인가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모두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구성한 내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관계와 상호 위상은 포스트콜로니얼과는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서방의 사회과학, 특히 국제관계연구 분야의 주류는 대부분 응답을 회피(응답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사회주의는 사실상 포스트콜로니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소련이 구유럽의 식민모국들처럼 원거리 해양제국이 아니라 육상제국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체제였기 때문인지, 유럽의 자유자본주의적 발전 모델에서 이탈한 변종이었기 때문인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현대 러시아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의 연구, 특히 모로조프의 ‘서발턴 제국’ 시각은 러시아와 서방 모두에게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러시아의 엘리트는 자국의 서발턴적 국제 위상이 자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균등-결합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러시아 국가가 스스로 자국의 내부 식민화를 추동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설령 그것이 비유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서발턴 제국의 위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의 고유 영향권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

모로조프의 연구는 역사와 문학 연구의 작은 가지 하나에 불과한, 주로 영연방 지역을 대상으로 해 온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의 일부 성과를 러시아 정치 및 국제관계 연구에 창의적으로 적용해 본(좀 더 정확히 말해, 도입한) 사례로서, 작은 범주에서 이루어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연구라 하겠다. 그런데 ‘전통적 지혜’와는 다소 동떨어진(그래서 더 창의적일 수도 있는) 자신의 논증을 제시하는 저자의 언술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방어적이다. 주류의 위치를 점하는 기존 이론과 접근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성찰 및 존중은 학문적 겸양과 예의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표현되면, 러시아와 함께 저자 역시 서방 중심의 세계학계에서 서발턴의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방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학자의 작지만 의미있는 이 도전은 학문분과간 벽을 허물려 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 극복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현대 러시아 사회의 국내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심화하고 자극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설혹 서방 특히 유럽 학계의 응답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목도하는 지구적 식민성의 현실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울리고 있다.